코스피 3000선에 1조 넘게 투자 증가…지역 증시 ‘훈풍’

6월 광주·전남상장법인증시동향

거래대금 3조7천418억…전월비 64%↑

한전 시총 5조7천456억↑ ‘증가액 1위’

지역 증권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6월 지역 투자자들이 전월 대비 1조원 넘는 거래대금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8일 코스닥시장본부 광주혁신성장센터의 6월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6월 광주·전남 투자자 거래대금은 3조7천418억원으로 전월 대비 63.5%(1조4천539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5월 1조6천138억원에서 6월 2조7천388억원으로 69.7%(1조1천250억원) 늘었다.

전남은 5월 6천742억원에서 6월 1조31억원으로 48.8%(3천289억원) 증가했다.

광주·전남 상장법인 중 시가총액(시총) 증가액 1위는 한국전력(유가증권), 파루(코스닥)였다.

6월 한국전력의 시총은 전월대비 5조7천456억원 늘어난 25조2천292억원이었다.

파루의 시총은 188억원 늘어난 619억원으로 나타났다.

6월 지역 상장법인 시가총액 증가액 유가증권 상위 3개 종목은 한국전력, 한전KPS, 금호에이치티다.

코스닥 상위 3개 종목은 파루, 에스오에스랩, 남화토건이다.

6월말 광주·전남 상장법인(37사)의 시가총액은 32조2천963억원으로 전월 대비 25.4%(6조5천333억원) 늘었다.

전체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대비 광주·전남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비중은 1.1%로 전월 대비 0.1%p 증가했다.

6월말 광주·전남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15사)의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27.4%(6조5천665억원) 증가한 30조5천449억원이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22사)의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1.9%(332억원) 감소한 1조7천514억원이다.

전체 시황에서 6월말 코스피는 3,071.70p로 전월 대비 374.03p(13.9%) 증가했다.

월초 코스피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마국·중국 2차 무역협상 진전 등으로 대규모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2,920.03p, 6월12일), 이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하락했으나 갈등 완화로 낙폭을 회복하며 3,100선을 상회(3,108.25p, 6월25일)했다.

이후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상승폭을 축소 마감했다.

6월말 전체시장(외국주권, 주식예탁증권 제외)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12.6% 증가한 2천910조원이다.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2천511조원으로 전월 대비 13.6%, 코스닥시장은 399조원으로 전월 대비 6.7% 증가했다. /임채만 기자

지난달 외식 소주·맥주 가격 올랐다

술 품목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세

술집이나 식당에서 파는 소줏값이 열 달 만에 상승하고 맥주 가격도 작년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올랐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소주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1% 올랐다.

지난해 9월(-0.6%) 이후 9개월간 이어진 하락세가 반전된 것이다.

외식 맥주도 지난달 0.5% 오르며 지난해 12월(-0.4%) 이후 7개월 만에 방향을 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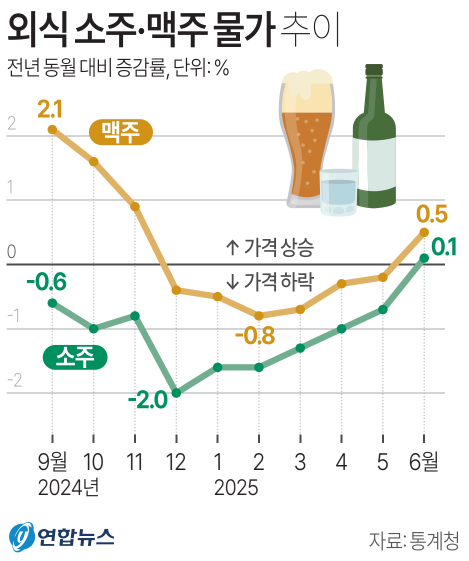
소매점에서 파는 소주 가격 역시 16개월 동안 하락하다가 지난 5월에 0.2% 오른 데 이어 지난달에도 0.1% 상승했다.

소매점 맥주 가격은 지난달 상승률이 3.1%로 지난해 10월(4.3%)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외식 소주와 맥주 가격은 그동안 이례적으로 장기간 하락 흐름을 보였다.

외식 소주 가격은 2005년 8월(0.1%)부터 지난해 8월(0.6%)까지 19년1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외식 맥주는 1999년 12월(1.3%)부터 지난해 11월(0.9%)까지 무려 25년간 쉬지 않고 올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소주·맥주 가격 하락은 외식업계가 심한 소비 부진에 대응하는 과정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이 손님을 잡으려고 술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는 ‘미끼 전략’을 쓰면서 물가지수가 내린 것이다.

그러다가 이번에 술 물가가 반등한 것은 이같은 미끼 전략이 끝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1분기 가계 여유자금 93조 ‘역대 최대’

소득 증가에도 소비·아파트입주 등 감소

지난 1분기(1-3월) 상여금 등으로 소득은 늘었지만, 소비나 아파트 신규 입주 등이 줄면서 가계의 여윳돈이 분기 기준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이 8일 공개한 ‘2025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1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9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작년 4분기(62조6천억원)보다 30조원 이상 늘었고, 통계 편제 이후 가장 많다.

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연초 상여금 유입 등으로 가계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감소, 소비 둔화 등으로 여유 자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두근두근 ‘K-바캉스’ 8일 서울 청계광장에 열린 ‘내수 활성화를 위한 K-바캉스 캠페인’ 행사장에서 시민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신차 구입 세대 양극화…20·30대 ‘최저’ vs 60·70대 ‘최고’

공유문화 확산 등 필수품 인식 차이

올해 상반기 20·3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이 10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60대와 70대의 등록 점유율은 크게 올랐는데 20·30대는 차를 필수품으로 여기지 않은 인식 확산 등으로 신차 구매를 하지 않는 데 반해 60·70대는 경제활동에 따른 이동 수단으로 여전히 차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8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개인 자가용 기준)는 2만9천66대로, 전체 승용 신차 등록 대수(51만1천848대)의 5.7%에 그쳤다.

20대 신차 등록 점유율은 2016년 8.8%에 달했지만 매년 하락세를 보이다 2022년 7.8%까지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6.7%를 기록했다.

만약 올해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2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은 10년 이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상반기 30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와 점유율도 각각 9만9천611대, 19.5%를 나타냈다.

20대와 마찬가지로 3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도 2016년에는 25.9%에 달했지만 10년 새 6.4%포인트(p) 하락했다.

이에 반해 고령층인 60대와 70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와 점유율은 매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60대와 70대의 신차 등록 대수는 각각 9만2천123대, 2만3천10대로, 전체 연령대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각각 18.0%, 4.5%로 집계됐다.

6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은 10년 전인 2016년 9.6% 불과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 올해 상반기에는 2배 가까운 18.0%까지 뛰어올랐다.

2016년 2.8%였던 7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도 매년 증가하다 올해 상반기 4%대 중반을 기록했다.

20·30대의 신차 구매가 줄어든 배경으로는 공유문화 확산으로 차를 더는 필수품으로 여기지 않는 인식 변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신차가격에 부담을 느낀 20대들이 차량공유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60·70대의 경우에는 이 연령대까지 경제활동이 이어지면서 이동권을 위해 차량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